

“치열한 선거판 이야기 스타일리시하게 담았죠”

26일 개봉 '킹메이커' 설경구·이선균

“솔직히 피하고 싶었던 캐릭터였어요. 너무나 잘 알려진 근현대사 인물이잖아요. 원래 배역 이름도 ‘김대중’이었는데, 변성현 감독을 졸라서 ‘김운범’으로 바꾸게 됐습니다.”(설경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서창대)를 찾았는데 왜 정작 스스로 중심에 서지 못하고 그림자로 지내야 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이선균)

최근 영화 ‘킹메이커’에서 정치인 김운범을 연기한 배우 설경구, 임창록을 모티브로 한 서창대를 연기한 배우 이선균과 온라인으로 만났다.

오는 26일 개봉하는 ‘킹메이커’는 1960~1970년대 대한민국 정치판과 선거를 소재로 한 영화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김운범과 그를 뒤에서 돕는 선거전략가 서창대의 이야기를 그렸다.

김운범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티브인 인물이다. 픽션을 가미하기는 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선거 도전사는 거의 그대로 옮겼다. 그러나 설경구는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자신이 해석한 캐릭터를 연기하려고 애썼다고 강조했다.

“캐릭터 이름이 바뀌며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자꾸 실존 인물이 연상되잖아요. 하지만 그분을 묘사하는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따라 했는데 어설프다가는 작품의 캐릭터에서 어긋나버릴 수 있으니까요. 제 식으로 하되, 실제와 겹치는 모습이 있으면 그 중간 즈음에서 타협했죠.”

설경구가 바라본 김운범은 소탈하면서도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다. 명분을 중시하는 대쪽 같은 인물이지만, 필요할 때는 흑색선전의 귀재인 서창대를 꾀감 빼먹듯 이용한다.

설경구는 “그 역시 인간”이라며 “인간 김운범에 초점을 맞춰 연기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할 자체가 정치인이다 보니 일부 장면에서는 정치인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고 말투도 연기해야 했다. 특히 수십만이 운집한 인파 앞에서 연



설경구(오른쪽)·이선균 주연의 영화 ‘킹메이커’가 오는 26일 개봉한다.

설, ‘김대중’ 이름 부담스러워 감독 졸라 ‘김운범’으로 바뀌이, 실존 인물이지만 정보없어 고민…상상해서 캐릭터 구축

설하는 신이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

“연설에서는 선동적이고 호소력 있어야 하고 소리를 내질러야 하잖아요. 사실 연설 신이 있으면 촬영하기 한두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더구나 연습할 장소도 딱히 마땅치 않아서 속으로만 하다가, 현장에서 실제로 촬영하며 톤을 조정했습니

다.”

설경구가 이처럼 이름만으로도 압박감이 들고 연기도 쉽지 않은 역할을 수락하게 된 이유는 뭘까. 그는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변 감독의 또 다른 작품인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2016) 시나리오와 함께 받아들였다고 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 역

을 꼭 맡아달라는 변 감독의 말에 “일단 ‘불한당’ 찍고 얘기하자”고 했던 설경구는 어느샌가 ‘킹메이커’ 출연이 기정사실로 돼 있었다고 회고했다.

“변 감독에게 제 나이의 역할은 무조건 저한테 줘야 한다는 협박까지 했어요. 하하. 변 감독이 저를 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든 신선한 이야기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전 대통령은 누구나 아는 인물이지만, 임창록에 대해서는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다. 당시를 기록한 책들에 짧게 등장하는 임창록은 ‘선거판의 여우’, ‘흑색선전의 귀재’로 묘사된다.

이선균은 남과 북이 극한으로 대치하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서창대가 이북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주목했다.

약방을 운영하던 서창대는 처음 김운범에게 자신을 써달라고 접근하면서 ‘이북 사투리도 싹 고쳤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이북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건 어쩔지 못했다.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워낙 정보나 기록이 없어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상상해서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는 부담이 덜하기도 했죠. 서창대가 계약과 술수를 쓰는 상황은 이미 시나리오에 잘 표현돼 있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따르면 됐어요. 처음엔 사투리를 쓰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조금씩 나오면 좋겠다고 감독에게 의견을 냈죠. 출생의 한계라는 약점을 드러내야 그가 그림자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일 것 같았어요.”

영화는 코로나19로 개봉이 미뤄지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보이게 됐다. 이선균에게는 첫 정치 드라마이기도 하다.

이선균은 “대선이 코앞이라 일부 우려도 있는 것 같지만 정치색을 띤 영화는 아니다”라며 “치열한 선거판 안에서의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시나리오를 봤을 때 1960~1970년대 선거 이야기, 두 인물의 신념과 갈등이 재밌었어요. 선택의 이유는 무엇보다 ‘불한당’의 변성현 감독, 설경구와 함께한다는 게 컸어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작품이었죠.”

그는 “누아르 범죄 영화는 많지만 ‘불한당’은 스타일 면에서 독특하고 인물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섬세하게 표현된다”며 “그게 ‘불한당’의 힘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했다.

“처음 해 본 장르의 영화들이 또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서 어떻게 봐주실까 기대가 돼요.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역할보다는, ‘나한테 이걸 왜 줬지?’ 싶고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과 역할을 더 만나 보고 싶어요. 고민하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그러면 성장하겠죠. 잘 넘어가면서 나이에 맞는 역할이면 좋겠네요.” /연합뉴스

‘쇼윈도: 여왕의 집’ 시청률 10.3%로 종영

채널A 드라마 역대 최고 기록

채널A 10주년 특별기획 월화드라마 ‘쇼윈도: 여왕의 집’(사진)이 두 자릿수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0분 방송된 ‘쇼윈도: 여왕의 집’ 최종회 시청률은 10.3%(비지상파 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채널A 드라마 역대 최고 기록이다.

‘쇼윈도: 여왕의 집’은 완벽한 가정을 꾸린 아내이자 엄마인 한선주(송윤아 분)가 남편 신명섭(이성재)의 외도와 야망으로 무너져가는 삶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여기에 신명섭의 내연녀 윤미라(전소민)가 갈래 찢러 퍼버려진 장면들 첫 회부터 공개하고, 윤미라를 찢른 범인을 찾는 추리극의 재미를 더했다.



드라마는 2%대 시청률로 시작했지만, 매회 업고 고집한 인물 관계를 드러내면서 중반에는 5%대 시청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후반에 들어서는 8%대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장민호 첫 단독 콘서트 ‘드라마’ 24일부터 전국 CGV에서 상영

가수 장민호(사진)의 첫 단독 콘서트 ‘드라마’가 24일부터 전국 CGV에서 상영된다고 예스24가 밝혔다.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라는 이름의 이 공연 실황에는 장민호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24년 만의 첫 단독 콘서트와 그 비하인드 인터뷰가 담겼다.

장민호는 앞서 지난 17일 밤 9시 개봉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화 개봉과 맞물려 특별 굿즈도 판매했다. /연합뉴스



신화 멤버 앤디 결혼한다 신부는 9살 연하 아나운서

그룹 신화의 멤버 앤디(본명 이선호·사진)가 결혼한다.

앤디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한 사람이 생겼다”며 결혼 소식을 전했다.

가요계 등에 따르면 상대는 9살 연하 아나운서이다.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 중이며 날짜는 추후 알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